

일본의 한 지역의 사회사와 향토사운동

이즈시라하마(伊豆白浜)의 사례

박동성*

1. 머리말

시라하마(白浜)는 백사장이라는 의미로 일본에서는 비교적 흔한 지명이다¹⁾. 그래서 대개 시라하마에는 다른 지역명이나 행정명이 붙어 있다. 본 논문에서 논할 지역인 시라하마는 시즈오카현(静岡県) 시모다시(下田市)의 하위지역이다.

필자는 1997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시모다시에서 문화인류학적 현지조사를 행했는데 이 논문은 당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시라하마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을 시모다시 시라하마가 아니라 ‘이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 심사와 논평을 통해 좀 더 나은 논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의있는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1) 예를 들어 난기 시라하마(南紀白浜)라고 하면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시라하마마치(白浜町)를 말하며 치바 시라하마(千葉白浜)라고 하면 치바현(千葉県) 시라하마마치(白浜町)를 가리킨다.

즈 시라하마(伊豆白浜)'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런 경향에는 시모다(시)라는 지역과의 사이에 있는 경쟁의식이 그 하위로 표현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미묘한 감정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시라하마지역을 때로는 개성적으로 보이게도 하며 때로는 배타적인 사회로 인식하게도 만든다.

시라하마는 1889년 '메이지의 대합병(明治の大合併)²⁾'에서 1955년 '쇼와의 대합병(昭和の大合併)³⁾'까지 행정촌이었던 곳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있다. 근대의 지역정책에 따라 전래의 지역단위, 즉 소위 자연촌(自然村, 시젠손)⁴⁾은 모두 행정촌(行政村, 교세이손)의 일부가 되었다. 시라하마의 경우 '메이지의 대합병'시 하마자키무라(浜崎村)의 일부가 되고 다시 분촌(分村)하여 독립된 시라하마무라(白浜村)가 되었다⁵⁾. 자연촌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락을 가리키는 말인데 시라하마의 경우 내부에 다시 하위지역이 되는 세 개의 부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 전체가 '자연촌'으로 여겨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그것이 오늘날에도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공동체는 지역공간을 기본으로 상정되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과거 일본에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기본적인 지역사회의 단위는 '자연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촌의 생활공동체성은 근대화와 더불어 약해져 갔고 지금은 그 실체성을 찾기조차 어렵다.

2) 1890년에 시행된 시제정촌제(市制町村制)를 앞두고 행한 대규모 지역합병을 말한다. 7만 이상의 "자연촌"을 약1만 5천여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했다.

3) 1950년대에 행해진 대규모 지역합병을 말한다. 1만 5천여 개의 지방자치체를 3천여 개로 축소했다.

4) 자연촌은 행정촌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스즈키 에이타로가 주창한 개념이다(鈴木栄太郎 1940). 근대지방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 통치의 효율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개념으로 만든 행정단위가 행정촌이며 행정촌의 일부로 통합된 전통적인 취락을 자연촌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鳥越皓之 1985).

5) 시라하마(白浜), 시라하마무라(白浜村), 시라하마지구(白浜地区)는 역사적으로 시기를 달리하면서도 완전히 일치하는 공간적 영역을 가리킨다.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은 시라하마이다. 본 논문에서 특별히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라하마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한편 과거의 시라하마에는 실제적인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우뭇가사리와 관련된 독특한 역사가 있다. 한천의 원료인 우뭇가사리는 채취에서 출하, 그리고 이익의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지역 전체에서 통제되고 있었고 전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뭇가사리 철에는 “가족이 총출동해서 자기 집 뭇을 가지고 와서 잡티를 가리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교하면 바로 작업에 참가”(原昇 1996:168)하는 것이 과거 시라하마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주민들은 우뭇가사리라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뭇가사리가 시라하마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현재 시라하마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은 관광업이다. 민숙, 식당,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높아졌고 인구구성에서도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세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세대가 증가해 왔다. 지역사회의 유대가 점점 약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시라하마의 일부 주민들은 우뭇가사리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자원을 공동체성의 재생을 위한 향토사의 재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라하마의 사회사를 재구성하면서 ‘자연촌’의 생활공동체성을 역사 속에서 찾고, ‘옛날의 시라하마로부터 배우는 모임(昔の白浜に学ぶ会)’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향토사운동의 전개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뭇가사리라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변동과정을 살펴보고, 향토사운동이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찰해 나가겠다.

2. 지역개관

국도 135호선을 따라 시모다 방향으로 남하하면 카와즈마치(河津町)를 지나 4km 정도 무인의 해안도로가 계속되다가 주택지가 나타난다.

거기서 1.5km 정도 달리면 다시 무인의 해안도로를 만나는데 주택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시라하마지구이다. 도로의 동쪽은 해안 모래사장이며 서쪽이 마을인데 도로변에는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고 해안과 산기슭에는 대형 호텔이 서 있다. 그리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민숙이 자리하고 있다.

시라하마 지구는 이타도(板戸)·나가타(長田)·하라다(原田) 3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견하기에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 전체가 오랫동안 하나의 단위로 이어져 왔다. 주택지의 한가운데쯤에 시라하마신사(白浜神社)가 위치하고 있다(위치관계는 지도를 참조 바람). 이즈반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신사가 시라하마신사이다. 전설에 따르면 시라하마신사가 건립된 것은 2500년 전이며 시라하마신사에서 미시마시(三島市)의 미시마신사(三島神社)와 시모다시 혼고(本郷)의 하부신사(波布神社)가 갈라졌다고 한다.

노인들은 옛날의 시라하마를 ‘공산촌’이라는 별명으로 기억한다. 잡지 『쿠로후네(黒船)』 제8권 제11호(1931)에는 막대한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매년 수백엔의 배당금을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시라하마의 풍요로움을 그리고 있다. 시라하마가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던 것은 우뚝가사리 채취로부터 얻는 막대한 수익금이 ‘균등배분’되며 또 ‘세금을 내지 않은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이었다. 즉 ‘공산촌’이라는 별명에는 일차적으로는 풍요로운 지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표는 1953년의 시라하마무라의 경제상황이다.

시라하마무라는 1955년 합병으로 시모다마치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1954년은 자치체로서 독립적인 예산 집행을 한 마지막 해이다.

이 표를 보면 시라하마에서는 1차 산업 중에서 수산업이 농업생산의 거의 2배에 달하고 더욱이 수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우뚝가사리가 점하고 있다. 1차 산업 전체에서 보면 우뚝가사리의 비율은 약60%를 점한다. 1차 산업이 중심이던 당시의 산업구조에서 보면⁶⁾ 시라하마에서는 우뚝

<시라하마의 1차 산업의 산업별 생산액>

업종	합계	종별	금액	비율
농업	32,589,050	벼	9,936,000	10.1
		보리	3,300,000	3.3
		감자	2,300,000	2.3
		감귤	4,250,000	4.3
		화훼	9,000,000	9.1
		그 외	3,803,050	3.9
임업	2,610,000			2.6
수산업	63,553,211	우뭇가사리	60,077,070	60.8
		새우	2,400,000	2.4
		그 외	1,076,141	1.1
합계	98,752,261			100.0

* 『村勢要覽』 1954 白浜村에서 작성

** 축산은 양이 극히 적고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가사리라는 단일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라하마의 경제에서 우뭇가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역사회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오다가 1950년대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뭇가사리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율은 시라하마의 지역적인 특징이며 거기에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라하마 지역의 역사적인 변천을 우뭇가사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자⁷⁾.

6) 『村勢要覽』(白浜村 1954 : 20)에 따르면 농업·농수산업의 인구비율은 1954년 6월말 현재 84.5%이다.

7) 시라하마의 사회사는 필자가 ‘옛날의 시라하마로부터 배우는 모임’에 참가하면서 정리해 왔다. 모임의 회보 『白浜』 제2호에 수록되어 있는 사사키 타다오(佐々木忠夫)의 자료가 우뭇가사리의 역사를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고, 『伊豆の天草漁業』도 참고가 된다.

3. 시라하마와 우뭇가사리의 역사

1)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

한천(寒天)의 제조법이 발견된 것은 17세기의 일이다⁸⁾. 우뭇가사리는 한천의 원료가 됨으로써 중요한 상업물품⁹⁾이 되었다.

우뭇가사리는 이즈반도의 바다에 처음부터 자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70년경 최초로 시라하마에 이식되었다¹⁰⁾. 이식의 목적이 한천의 원료로서인가 아니면 우무의 원료로 쓰기 위해서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뭇가사리는 이즈반도의 다른 지역에도 이식되어 갔다. 이후 한천 제조가 증가함에 따라 1785년 오사카의 건어물 도매상이 시모다항에서 현지 상인과 이즈반도 일대의 우뭇가사리에 대한 독점계약을 맺어(『伊豆の天草漁業』: 4),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무렵부터 이즈반도 지역은 일본 유수의 우뭇가사리 산지가 되었다.

시라하마의 역사에서는 일찍부터 우뭇가사리가 상품작물로 공적으로 취급된 흔적이 나타난다. 시라하마는 해초채취수익금으로 니리아마

8) 한천의 제조법의 발견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伊豆の天草漁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650년대 말 사즈마번주(薩摩藩主)가 에도에 참근(參勤)하는 도중에 교토후(京都府)의 야마시로쿠니(山城國) 후시미(伏見)의 미노베 타로자에몽(美濃部太郎左衛門)의 집에 묵었을 때 우무가 향용으로 사용되었다. 남은 우무를 흑환의 문밖에서 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눈에 띄었을 때는 투명한 종이처럼 되어 말라 있었다. 타로자에몽은 고심한 끝에 우무를 얼린 후 햇볕에 말림으로써 수분을 없애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것을 은 원선사(1592-1673)가 한천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伊豆の天草漁業』: 3-4).

9) 1751년에는 한천을 취급하는 도매상이 생겼다고 한다. 오사카의 건어물 도매상인 오네야 쇼헤이(大根屋小兵衛)는 1785년 시모다항에 가서 현지 상인과 교섭하여 이즈반도 일대의 우뭇가사리를 독점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이즈반도에서 우뭇가사리의 유통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伊豆の天草漁業』: 4)고 한다. 한천 도매상은 분세이시대(文政, 1818-1829)에 동업자 연맹을 결성하고 한천의 원료가 되는 우뭇가사리를 전국에서 구매하게 되었다.

10) 우뭇가사리의 전래에 관해서는 이설이 있다. 하나는 1670년대에 후지가 모씨가 키슈(紀州)에서 우뭇가사리가 부착된 돌을 배로 운반하여 시라하마의 바다에 투입해서 번식시켰다고 하는 설이고, 또 하나는 코즈시마(神津島)에서 이식했다는 설이다. 어쨌든 양 쪽 다 이식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이칸(葦山代官)에게 매년 영업세를 납부했는데 효호시대(享保, 1716~1736)에 에이라쿠센(永樂錢) 500문(文)에서 시작하여 1747년에는 에이라쿠센 2관(貫) 250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했다. 1757년에는 다이칸(代官)에게 출원하여 1821년까지 해조류채취수익금으로 매년 에이라쿠센 9관 510문을 상납하고 우뭇가사리의 채취권을 얻어 논밭의 비료로 쓰는 것이 허가되었다¹¹⁾ 그 때까지 시라하마에서는 우뭇가사리를 무라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상인에게 하청을 주어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수익도 늘어갔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에도시대가 되면 이즈반도 전체가 에도막부의 직할령이 되어 처음에는 미시마다이칸(三島代官)의 지배하에 있다가 나라야마다이칸(葦山代官)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러나 에도시대 후기가 되면 점차 직할지에서 다이묘(大名)나 하타모토(旗本)의 영지가 증가한다. 1811년에는 하타모토 오가사와라(旗本小笠原)씨가 시라하마의 절반을 지배하고 나머지 절반은 나라야마다이칸이 지배하게 되었다. 1822년에는 누마즈한 미즈노(沼津藩水野)씨와 하타모토 오가사와라씨가 절반씩 지배하게 되었다. 백성도 절반씩 농지도 절반씩 나누어져 나누시(名主)도 이타도(板戸)·나가타(長田)·하라타(原田)의 각 부락에 한 명씩 두어 시라하마 전체에는 6명의 나누시가 두어졌다.

누마즈한 미즈노(沼津藩水野)씨가 시라하마의 영주가 되면서 바다의 자원채취권이 부정되어 주민에게는 종전처럼 비료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번(藩)에서는 상인에게 하청을 주어 자원을 채취

11) 과거 시라하마는 퇴비채취장으로 이용되는 공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해초를 비료로 쓰고 있었고 따라서 우뭇가사리도 비료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식설과 양립하기 어렵다. 우뭇가사리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우뭇가사리가 부착되어 있는 바위를 운반하여 바다에 투석해야 하는데 이동 중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한번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비료로 쓰기 위해서라면 일부러 멀리서 이식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 옛날부터 이즈반도에 우뭇가사리가 없고 이식된 것이라면 한천을 만들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실제 시라하마에 우뭇가사리가 전래되었다고 하는 시기도 한천 제조법이 발견된 이후의 일이다.

하게 했는데 주민의 값싼 노동력까지 상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보았다. 1820년대부터 1872년에 이르기까지 시라하마 주민은 인근 스자키(須崎) 방면으로 품팔이를 나가는 경우에도 월 5, 6일 이상 품을 파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번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주민의 이동을 감시했던 것이다(阿部義雄·小沼勇 1951:48). 당시 스자키는 막부의 직할령으로 바다의 자원채취권을 지역이 가지고 있었고 임금도 시라하마보다 높았기 때문에 품팔이를 나갔던 것이다.

근공해진 촌민이 영주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 결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30량의 비료대가 지불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100량까지 증가했다(『伊豆の天草漁業』: 8). 이것을 이타도·나가타·하라다 3부락이 나누고 부락 안에서 다시 경작지의 면적에 따라 배분되었다.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비료대 때문에 무리에서는 자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메이지 시대가 되어 바다의 자원채취권이 지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어 1902년에야 비료소 우뭇가사리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평등 배분이 이루어졌다.

2) 근대 이후: 평등배분과 ‘공산촌’의 이미지

에도시대의 시라하마는 어업을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에도시대에는 해안지역이어도 ‘원칙적으로 농민의 어업진출을 제한’(伊藤 1977: 74)하고 농업생산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때문에 어업은 부업이든지 비료채취를 위해서 하는 정도였다. 메이지 시대가 되면 상황이 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업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¹²⁾.

한편 토지소유 상황으로 판단하면 에도시대의 시라하마도 토지 생산

12) 『静岡県水産誌』(p.75)에는 “(시라하마의) 주민생활은 주로 농업이며 어업은 여가시간에 한다”라고 해서 당시(1880년대)의 생업비율을 농업 60%, 해초채취업 25%, 어업 15%라고 하고 있다. 해초채취업은 주로 우뭇가사리 채취를 말한다.

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阿部義雄·小沼勇 1951 : 49). 그 부족분을 우뭇가사리 채취와 같은 농외 수입으로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원채취권이 영주의 손으로 넘어간 후의 시라하마는 분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궁핍해졌다. 메이지 시대가 되어 바다의 자원채취권이 다시 무라에 돌아오면 호수가 현저히 증가하는데 이것은 바다가 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터전이었던가를 말해 준다.

1870년(明治 3) 바다의 자원채취권이 회복되는데 영주와 상인간의 계약이 이 때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시라하마에서는 상인에게 하청을 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지속했다. 1891년에서 1896년까지 시라하마는 우뭇가사리와 그 외의 바다 자원에 대한 채취권을 도쿄의 오노 기헤이(大野儀兵衛) 및 시라하마의 하세가와 다이키치(長谷川大吉)에게 매각했다¹³⁾. 1897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채취권이 지역으로 돌아오자 ‘우뭇가사리 순익 처분 규정(天草純益處分規定)’을 정해서 우뭇가사리의 채취·처분에 관한 일체를 무라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우뭇가사리 문화’라고 할 만한 시라하마의 독특한 우뭇가사리 관리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그 때까지의 우뭇가사리는 적어도 주민의 입장에서 비료이든 환금작물이든 그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이다¹⁴⁾.

우뭇가사리 어장을 촌영(村營)으로 한 이후의 이익금 처분 방식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05년 배당6할, 기본금 적립 2할, 일반회계조입(繰入) 2할
- 1915년 배당8할, 기본금 적립 1할, 일반회계조입 1할
- 1923년 배당8할, 촌비1할, 기본재산적립6푼, 육영자금 4푼

13) 외부의 상인인 지역의 유력자와 연계하는 이러한 방식은 에도시대부터 이즈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14) 전용어업권(專用漁業權)이 정식으로 촌유(村有)가 되는 것은 1908년의 일이다.

1930년 배당8할, 촌비1할, 기본재산적립1할

1935년 전액 배당

1952년 채취료3할, 배당3할, 생산시설자금적립3할, 재정조정적립금1할

(『天草の沿革』: 13)

배당금의 호별 평등배분이 공식화된 것은 1905년의 ‘시라하마무라 전용어업 이익금배당에 관한 규정(白浜村専用漁業益金配当に関する規定)’이 정해지고부터이다. 이후 배당액의 비율이나 적립금, 촌비 등의 비율은 시기적으로 달라지기도 하지만 틀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후(1945년 이후)에는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시라하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역 사회에 대한 세력가의 지배를 일소했고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우뭇가사리에서 얻는 수익을 배당하는 기원은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뭇가사리가 한천의 원료로 상품화된 이후 얼마간은 개개인이 우뭇가사리를 채취하여 상인에게 파는 방법과 무라가 상인에게 하청을 주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나 거래 방식이나 이익을 취하는 방식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단 영주가 주민에게 지불한 비료대의 분배방식은 알려져 있다.

비료대는 토지 소유량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는데 토지가 많은 사람에게 높은 배당을 하는 이런 방식은 1890년대 이후까지 이어졌다. 지역 내부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배당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배당의 평등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그 주도자가 당국자를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91년의 일이다. 원고 하라 타케조(原竹藏)·사사키 키요키치(佐々木清吉) 대 피고 쿠초(区長) 카나자시 조지(金指藏二) 사이의 재판이 그것이다¹⁵⁾. 고소 이유는 우뭇가사리 채취권 매각대금을 불평등 하게 배당했다는 것이다. 재판은 시즈

15) 이 재판의 판결문은 『白浜村沿革誌』에 실려 있다.

오키현 시모다 지방재판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안건은 지역의 총의를 존중하여 지역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판결 이유로 1892년 4월 1일 원고 패소로 종결되었다.

그 8년 후인 1900년에는 시라하마 촌장 스즈키 류헤이(鈴木柳平)가 하라 타케조를 고소했다¹⁶⁾. 고소이유는, 하라 타케조가 “우뭇가사리는 촌유재산”이라는 규약을 어기고 우뭇가사리를 멋대로 처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시모다 지방재판소에서 1900년 9월 22일 피고 패소로 판결이 내려졌다¹⁷⁾.

판결문에 따르면 고소이유와 같이 하라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 그런데도 왜 그는 이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갔을까? ‘시라하마의 옛날로부터 배우는 모임’을 주도하고 있던 테라카와(寺川)씨처럼 하라를 계급투쟁의 선봉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는 재판의 본질과는 다른 점에서 관행적 불평등의 모순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당시는 상인과의 계약이 해소되어 우뭇가사리가 무라의 재산이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불평등 배분에 관한 사실을 공적인장에서 폭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분쟁은 때로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을 목표로 두지 않기도 한다. 분쟁과정(dispute processing)을 통해 사회의 역동적인 장면들이 드러나며 분쟁을 제기하는 주체에게는 문제제기 자체가 분쟁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Felstiner 1974 : 63). 이런 경우 분쟁의 승패 혹은 해결은 분쟁 제기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쟁이 사회적 사건이 되는 것을 통해 사회변동의 계기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하라는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그 때까지 지속되어 왔던 저항과 문제의 공론화에 힘입어 이후 촌의회가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후 시라하마에서는 1902년 해면의 권리를 호별로 균등하게 나누고 1905년에는

16) 1891년에 시라하마는 하마자키무라의 일부였으나 1900년에는 시라하마무라로 독립된 행정촌을 구성하고 있었다.

17) 이 재판의 판결문도 역시 『白浜村沿革誌』에 실려 있다.

우뭇가사리 수익금의 평등배분이 공식화된 것이다. 하라의 시도는 개인적으로는 재판의 패소라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후의 사회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찌감치 과거의 폐습을 철폐하고 우뭇가사리라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것이 ‘공산촌 시라하마’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한편 시라하마에서는 외지에서 전입한 세대와 분가한 세대에 대한 차별을 규정으로 두고 있었다¹⁸⁾. 근세 말 어장을 빼앗기고 짝 임금으로 영주를 위해 일해야 했던 상황에서 어업권이 돌아오자 세대수의 증가로 세대별 배당이 적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1878년 촌회 의결로 부락별로 호수를 제한했다. 제한 호수는 하라다 111호, 이타도 109호, 나가타 76호(阿部義雄·小沼勇 1951:49) 도합 296호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분가와 전입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수의 제한과 함께 이익 배분의 비율에도 제한을 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배타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산촌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평등성과 어긋난다. 이러한 배타성은 기득권의 보호와 촌내 차별을 낳고 계급투쟁의 여지를 항상 안고 있는 것이었다.

3) 자원 관리의 방식과 구조

시라하마에서는 1902년 근해에 대한 권리를 호별로 균등하게 나누

18) 그 내용은 1. 매년 12월 1일 현재 무라의 주민일 것, 호주로 본촌에 본적 및 집을 가지고 있을 것, 그 집에 거주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무라 및 구의 부담을 분담하고 있을 것이 조건이다. 2. 상속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연수를 적산(積算)해서 호주상속을 인정한다. 3. 원칙으로 무라 안에서 분가한 자는 15년 후에 절반의 배당권, 30년 후에 온전한 배당권을 가진다. 4. 외지에서 이주해 온 경우 30년 후에 절반, 50년 후에 온전한 배당권을 가진다. 5. 사정이 있어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전체 또는 보충 배당이 인정된다. 6. 배당금은 매매·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일체의 우뭇가사리관계 규정 위반자는 배당금을 1-5년간 정지한다(이상은 天草利益金配当規定에 의함)(阿部義雄·小沼勇 1955:54). 이 규정은 1952년에 공포된 ‘시라하마무라 우뭇가사리어업 이익금 처분에 관한 조례(白浜村天草漁業益金処分に関する条例)’에서 완화되어 온전한 배당권이 인정되는 것은 “분가자는 3년 후, 전입자는 10년 후”로 개정되었다.

고 1906년에는 규정으로 촌세(村稅)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근해의 자원에 대한 세력가의 지배가 이즈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1930년대까지도 지속된 것과 비교하여 시라하마에서 이른 시기에 구관을 철폐하고 평등을 달성한 것은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촌 당국이 우뭇가사리 어장의 관리에서 수익의 배분까지의 전 과정을 통제하게 되고 안정적인 수확과 상품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뭇가사리의 풍흉을 좌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연적인 요인이지만 어장 관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시라하마에서는 잡초제거, 병충해 방지, 투석(投石)¹⁹⁾등을 촌 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어장을 관리함으로써 수확량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품질이 좋은 우뭇가사리 산지로 알려졌다.

공산촌이라는 별명도 시라하마의 우뭇가사리 관리방식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공산촌에서 연상되듯이 공동소유, 균등배분이라는 것은 시라하마의 우뭇가사리 경영이 갖고 있던 커다란 특징이다. 공동소유의 면에서는 우뭇가사리 어장을 촌유로 해서 무라가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전용 어업권을 촌유로 한 경위와 평등배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다.

다음으로 생산력 통제의 양상을 보도록 하자. 보통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시기는 5월 초에서 10월 중순까지였다(6월의 농번기는 일시 정지).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 잠수나 망가²⁰⁾에 의한 채취가 행해졌고 폭풍우 때는 파도에 밀려온 것을 갈퀴를 써서 모으기도 했다. 우뭇가사리의 채취방법에는 동력선 사용은 제한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²¹⁾

이렇게 해서 채취한 우뭇가사리를 이타도·나가타·하라다의 각 부락의 사무소에 전달하면 채취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했다. 채취된 우뭇가사리는 선별, 건조, 제본 등의 공정을 거쳐 판매되는데 이러한 작업에

19) 투석은 우뭇가사리가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다에 바위를 투입하는 일이다. 자연석을 투입하거나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 구조물을 투입한다.

20) 저인망과 유사한 모양으로 바닥에 끌리도록 만들어 배로 끌고 다니면서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도구.

21) 동력선 사용을 제한한 이유는 남획을 방지하고 어장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대해서도 주민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 우뭇가사리는 채취 방식, 상품화, 판매, 배당을 하는 과정까지 모든 흐름이 촌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시라하마 지역의 우뭇가사리 어업의 임금은 이나토리(稲取), 스자키(須崎) 등 주변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샅일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시라하마의 어장에서 작업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우뭇가사리의 채취에는 촌민이라는 자격이 필요했는데 타 지역 사람을 배제할 뿐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도 전입자와 분가한 자의 경우는 상당기간 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한 후 비로소 채취권이 인정되었다. 또 우뭇가사리 채취기간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샅일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배타적이고 값싼 노동력의 확보가 가능했다. 이것은 명백한 계급적 착취로 간주되는데 어떤 세대의 구성원이 우뭇가사리 채취에 종사하는 자가 많을수록 즉 농업이나 상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할 여지가 적을수록 세대의 1인당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시라하마에서는 처분이익에서 채취경비 등을 제외한 순익의 일부를 배당하기 때문에 지역 내 노동력에 대한 채취요금이 낮을수록 순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채취료를 억제함으로써 실제 노동종사자가 착취를 당할수록 배당금의 액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공산촌” 시라하마의 이미지는 더 강해지는 것이다.

과거의 시라하마와 시라하마 주민에게 우뭇가사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쉽게 대체되었으며, 여기에는 보다 큰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적응과 더불어 과거의 계급적 대립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우뭇가사리를 쉽게 포기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지역경제의 중심이 관광업으로 이전하는 상황과 과정을 살펴해보겠다.

4. 산업구조의 변화와 우뭇가사리의 자원적 가치의 약화

1955년 합병으로 시모다마치(下田町)의 일부가 된 시라하마는 촌유였던 어업권을 어업조합에 이관했다. 당시는 거의 전 세대가 어업조합원이었고 그래서 어업권이 어업조합에 귀속된 후에도 표면상의 변화는 없었다. 우뭇가사리 채취에서 얻는 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도 계속되었다. 한편 분가와 전입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에 따라 호수의 급격이 증가라고 관광지화의 진행과 그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우뭇가사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자원으로써의 매력이 줄었다. 이런 현상을 촉발한 가시적인 사건이 철도의 도입이다.

1961년에는 이즈큐텐테츠(伊豆急電鉄)가 이토(伊東)에서 시모다까지 개통되었다. 당시까지 이즈반도의 남부 지역에는 시모다와 그 주변의 온천지역 이외에는 관광지화가 그다지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어도 불편한 교통편 때문에 이 지역으로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로 주변 지역의 관광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개발회사는 대자본을 이용한 리조트 시설 건설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용자를 하여 민숙을 시작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이즈반도에는 급격하게 민숙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즈반도는 당분간 동경을 중심으로 한 칸토(關東) 지역에서 가장 매력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여 관광객이 집중하는 지역이 되었다. 시라하마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민숙이 번성한 지역이다.

이즈반도 지역의 관광지화는 이 지역 주민의 경제 형태를 크게 변화시켰다. 대자본의 지원으로 이즈큐(伊豆急) 철도 주변에는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그와 함께 우뭇가사리 어업은 사양화되어 갔다. 민숙은 여성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성들은 우뭇가사리 채취장에서 집안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여성에게 우뭇가사리의 채취와 운반이라는 중노동에서 보다 쉬운 노동으

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본 경제 전체의 발전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다른 업종에 비해 가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뭇가사리 채취 작업은 더 이상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민숙을 경험해 온 여성의 경험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웃 카와즈에서 시집을 와서 1969년에 민숙을 시작했다. 당시는 누구나 민숙을 하고 있었다. 보통은 살고 있는 집을 약간 손을 봐서 민숙을 했다. 그 때까지 우뭇가사리를 채취한다고 잠수도 했는데 일이 정말 고되다. 민숙은 바쁘기는 하지만 집에서 하니깐 그다지 힘든 줄 몰랐다. 돈벌이도 더 되고 여름이 되면 손님이 줄줄이 들어왔다. 우리 집은 스무 명 정도면 다 차는데 손님이 몰려 올 때는 40명 정도까지도 받았다. 어떤 때는 밤 12시 정도가 돼서 손님이 와서 재워 달라고 하기도 했다. 방이 다 찼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할 수 없이 현관 쪽에 이불을 깔고 자게 한 적도 있다. 버블 때도 엄청나게 몰려왔다. 여름에는 항상 만실이였다. 지금은 손님이 줄어서 앞으로 며느리가 해 나가야 하는데 힘들게 되었지만(여성, 1930년생)

관광지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때 민숙을 경영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우뭇가사리 채취 경험자들이다. 그들은 민숙 경영이 우뭇가사리 채취에 비해 훨씬 낫다고 한다. 민숙 경영이 노동 강도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뭇가사리 채취보다는 가벼우며 자영업이라는 자부심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 시라하마의 산업구조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반농반어에서 서비스업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관광지화와 함께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이미 시라하마의 풍경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었다. 자동차 사회가 착착 진행되어 이즈반도의 도로는 빠르게 정비되어 갔다²²⁾. 그와 함께 관광객의 승용차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우뭇가사리를 건조시키던 해안의 건조장은 주차장으로 변해 갔다²³⁾.

22) 1967년 유료도로 히가시이즈(東伊豆)가 완성, 1972년 여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라하마 구도로의 정비계획이 의회에서 가결, 1972년 마가레트라인의 개통 등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환경도 정비되어 갔다.

1970년대의 민숙은 여름이 되면 거의 매일 정원초과로 일손이 항상 부족할 정도로 번성했다. 이런 흐름은 오일쇼크 등 일시적인 침체기를 제외하면 거품경제 붕괴 후인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 흐름이 바뀌었다. 관광객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이에 따라 민숙의 운영방식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라하마만이 아니라 이즈반도 전체로 보아도 관광객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²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관광지로서의 이즈반도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각 지방자치체의 관광지 개발 정책이 1990년대가 되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위 “전국의 관광지화”의 결과 이즈반도가 동경을 비롯한 칸토권(關東圏) 관광객을 독점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로 저렴한 관광상품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즈반도는 더 이상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숙의 운영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원래 민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 숙박시설이 아닌 민가를 임시 숙박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초기의 전형적인 민숙도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부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숙이 본업이 되면서 투자액도 따라서 커져갔다.

시라하마 주민은 일부 샐러리맨 세대를 제외하고 거의가 어떤 형태로든 관광업과 관련을 맺고 있고 가장 많은 업종이 민숙이다. 1970, 80년대에 자금을 모아서 자기자본으로 규모를 확장한 민숙은 1990년대의 불경기에도 현상유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규모를 확장

23) 『回想の伊豆』시리즈3에서는 당시의 풍경을 이렇게 전한다. “우뭇가사리 이야긴데 작년(1975년) 시라하마의 채취량은 아주 적었다. 해안에 있는 양건장은 주차장으로 변했다. 해너는 시라하마뿐 아니라 어디를 가도 중년 이상의 여자 뿐. 후계자도 보기 어렵다.”

24) 이즈반도 남부 지역인 카모군의 관광객 수의 변화를 보면, 1975년 약425만명, 1985년 약543만명으로 약간의 골극은 있지만 점차 증가하다가 1991년 약618만명을 피크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 약472만명, 2000년 약374만명, 2004년 약358만명으로 점차 감소해 왔다(『南伊豆のすがた』2005년판).

하거나 새롭게 민숙을 개업한 곳 중에는 도산하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민숙이 여름 한철만 영업을 하고 있고 여름에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늘고 있다. 도로변에서 약간 산 쪽으로 들어가면 폐허가 된 별장과 호텔이 눈에 띈다. 시설확충과 선전에 새롭게 투자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곳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일부 주민이 향토사 연구를 통해 ‘좋았던 옛날로부터 배워’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고양한다는 취지로 연구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주민이 스스로의 역사를 말하는 장을 제공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라하마에서 시작된 이 향토사운동은 시라하마만의 개성을 가진 문화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본사회 전반의 흐름과, 시라하마를 둘러싼 주변 상황과 동조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지역사 내지 향토사에 관한 관심은 가까이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지방자치체가 주도하는 ‘자치체사’ 편찬이 증가함에 따라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²⁵⁾. ‘메이지 백년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행해진 당시의 지역사 편찬은 전문적인 학자가 중심이 되어 향토의 역사를 역사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류였다. 그 속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등장하지만 인터뷰 대상으로서만 등장한다. 지역사의 주체이면서 기술되는 객체로 위치지워지는 것은 중앙의 사학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중앙중심의 지역사(소위 ‘지방사’)²⁶⁾에 대해 주체적인 대응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

25)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각지의 지방자치체가 앞장서서 시작한 역사편찬사업은 일종의 유행처럼 성황을 이루었다(金原左門 1992: 1).

26) 1960년대까지 ‘지방사’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 용어는 중앙에 대한 주변이라는 위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1970년대부터 보다 중립적인 의미를 가

기 시작했다. 이것은 향토 사람들의 참가로 만드는 ‘지역사’이며 스스로의 역사를 말하고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토의 역사를 연구하고 집필하고자 한다²⁷⁾. 지방자치체 단위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향토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

시모다시 지역 내에서만 보더라도 과거 자연촌을 단위로 혹은 메이지 시대 이후의 행정촌을 단위로 향토사 연구를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져 있다²⁸⁾. 사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새로운 단위 사회를 형성하고자 할 때, 그리고 기존의 사회가 해체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것이다. 시라하마는 과거 생활공동체의 해체에 이은 경제적 침체로부터 지역사회 해체의 위기를 느끼면서 지역의 사회사 속에서 통합의 기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다음에서 볼 향토사운동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5. 향토사운동과 역사의 재구성

향토사운동의 일차적인 지향은 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사의 구성에 모든 주민이 참가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급적 많은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향토사운동의 본지가 된다. 시라하마에서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소재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분촌기념일(分村記念日)’과 같이 과거 시라하마의 위상을 강조하는 의례를 찾아내어 재해

진 ‘지역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사’가 널리 사용되게 되기는 했지만 ‘지방사’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27) 斎藤 博는『地域社会史の誕生』(1986)에서 아비코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체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자치체사를 발간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8) 스자키의 경우는 자연촌이 단위가 되어 향토사운동의 일환으로 지명 보존을 위한 지도를 작성한 바가 있고, 이나즈사 지구는 학구가 단위가 되어 소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모임을 가져 왔다.

석하고, 요시다 쇼인과 같은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역사를 “발굴”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자원들은 때로 이데올로기적이고 때로 구체적일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뭇가사리라는 경제적 자원을 중심에 두고 시라하마의 사회사를 구성해 보았다. 다음에는 우뭇가사리를 비롯한 역사적 자원과 관련시켜 향토사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겠다.

1) ‘옛날의 시라하마로부터 배우는 모임’

우뭇가사리는 시라하마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토사운동의 좋은 재료가 되었다. 1998년의 ‘옛날의 시라하마로부터 배우는 모임(昔の白浜に学ぶ会)’의 주제는 ‘우뭇가사리’였다. ‘옛날의 시라하마로부터 배우는 모임’(이하 ‘배우는 모임’)은 시라하마를 통합하는 재료 중 하나로 우뭇가사리를 선정한 것이다.

1997년 1월 ‘배우는 모임’의 제1회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연구회는 관광 시즌의 피크인 7, 8월을 제외하고 연 10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의 명칭을 ‘옛날의 시라하마를(昔の白浜を)’이 아니라 ‘옛날의 시라하마로부터(昔の白浜に)’로 정한 이유는 옛날의 시라하마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지표를 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목표는 옛날과 같은 공동체적 시라하마를 부활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만들었다. ① 사진, 문서 등의 자료의 발굴. ② 야고(屋号)²⁹⁾ 조사. ③ 민담, 전설, 전승 등의 조사·기록. ④ 과거 행해지던 민속행사, 놀이 등의 조사·기록. ⑤ 기록이 없는 과거사를 조사·기록. ⑥ 지역 내의 유물의 발견 등이다.

29) 어떤 집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택호와는 달리 사람이 아니라 건물과 장소에 부여된다. 따라서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야고는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현지조사 기간중 필자가 이 모임에 참석했던 상황을 묘사해 보기로 하겠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배우는 모임’의 연구회가 있었다. 필자는 민숙을 하는 인포먼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7시 10분 전에 공회당으로 갔다. 이미 몇 사람이 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필자도 함께 차를 준비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공회당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부엌, 화장실, 넓은 방이 하나 있고 2층에는 회의실과 방이 하나 있다. 부엌에는 차를 마시기 위한 도구와 취사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 공회당은 해수욕 시즌에는 인명구조대가 합숙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구회 장소는 1층의 넓은 방이다. 넓이는 10평(타타미 20장)이며 양쪽 구석에는 테이블과 칠판,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자리는 길쭉한 테이블을 사각형 모양으로 늘어놓아서 만들었다. 자리 배치는 정면에 발표자와 회장이 앉고 다른 사람의 자리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7시 정각이 되어 차를 돌리고 연구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는 13명. 연령구성은 거의가 50대 이상의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다. 매회 참가자는 조금씩 바뀌지만 열 명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연구회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라다구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사 테라카와씨이다.

이 날의 주제는 <시라하마의 관광>이었는데 발표자는 카나자시씨였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발제문을 돌리고 한 시간 정도 발표를 했다. 휴식 없이 바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각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발표자는 자신의 기억과 자료에 기초해서 발제문을 작성하고 있고 참가자는 그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식이다. 발표자와 주제를 정하는 것은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발표자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그 내용을 발표하고 검토하는 것이 연구회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충해서 회보에 실는 것이 보통이다.

발표와 토론으로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다음 연구회에 대한 공지가 있고 연구회는 끝났다. 참가자의 일부는 회장을 정리하고 일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 등의 뒷정리를 한다.

뒷정리가 모두 끝나면 불을 끄고 현관문을 잠그고 해산한다.

‘배우는 모임’의 직책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사무국 2명, 간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시라하마 지역 노인들의 비율이 높다. 운영계획은 간부회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예산은 회비로 충당된다. 회비는 연 회비 3천원으로 복사비와 음료대로 쓰인다.

시라하마 지역에서 우뭇가사리는 연구 모임을 위한 여러 가지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아직 시라하마가 우뭇가사리로 유행했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고 좀 젊은 사람이라도 윗세대로부터 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기록 부분을 기억으로 보충하고 또 기록을 통해 기억하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고치는 작업이 연구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기록의 영역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과 다른 기록에 비추어 자신의 기억을 재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민중의 역사를 표면화하여 우뭇가사리라는 재료에서 경제적인 자원 이상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과정인 것이다.

역사를 재인식하는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며 지역공간을 재인식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주민은 민속조사, 방언조사, 사진 전시회, 지역내 답사 등에 스스로 참가함으로써 “향토를 재발견”하고 “시라하마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매년 10월말에 개최되는 가을축제 때 시라하마와 관련된 옛날 사진 전시회를 가졌다. 먼저 회원을 중심으로 옛날 사진을 수집하고 회보에 사진 모집의 취지를 게재하여 주민의 참가를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모은 과거의 사진들은 졸업사진, 신사 앞에서 찍은 시치고상³⁰⁾의 사진, 출정군인의 환송회 사진 등이 많았다.

이런 사진에 대해 사진을 찍은 시기, 사진에 찍힌 인물, 사진을 찍은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사진에 찍혀 있는 인물들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많지만 회원들은 사진을 보면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형이라는 식으로 내용을 확인해 간다. 의견이 엇갈릴 때도

30) 어린이들이 7살, 5살, 3살 때 성장을 하고 신사에서 기원을 한다. 이런 민속은 근대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있지만 논의를 해 나가는 중에 당시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경험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50년 전의 사진을 보고 당시의 광경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드물다. 이것은 풍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풍경사진을 보고 언제의 사진인지를 밝혀 나간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시회가 열리는 장에서도 반복된다. 제1회 사진 전시회는 1998년 가을 축제 때 축제 본부인 공회당 옆에 있는 우뭇가사리 창고에서 개최되었다. 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사진 전시회를 보도록 유도한 것이다. 전시회장에서는 연구회에서 밝혀진 사항을 기록하고 회원들이 그것을 설명한다.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은 그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는, 쌍방의 정보교환의 장이며 주민이 참가하는 장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장은 주민의 동질감을 유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향토사운동이 지역을 분리된 독립적 단위로 인식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배우는 모임’이 주도해서 정착시키고자 한 행사가 다음에서 볼 ‘분촌기념일’이다.

2) 분촌기념일(分村記念日)

시라하마가 1888년 카키사키무라(柿崎村)와 스자키무라(須崎村)와 합병하여 하마자키무라(浜崎村)의 일부가 되었을 때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은 분촌(分村)을 청원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분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결국 1996년 하마자키무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라하마무라가 되었다. 『시라하마무라 연혁지(白浜村沿革誌)』에는 이 때의 분촌독립(分村獨立)을 지역의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메이지29년 8월 20일은 시라하마가 분촌한 날로 촌민은 당일을 이후까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시라하마는 오늘날 행정 전반에 걸쳐 교육과 권업(勸業) 토목에 이르기까지 자치체로서 그 일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부분의 사업에 완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촌 경계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촌 재정의 방침을 일정하게 하고 촌시(村市)를 정하여 자유의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즉 일촌독립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실로 올해 8월 20일은 독립을 확인하는 일대 축일(祝日)이다.

이후에 분촌의 유래를 기술하고 있는데, 1889년의 합병은 “상급관청의 강제적 명령에 의한” 것이며 당시 시라하마와 같이 하마자키무라를 구성하고 있던 카키사키와 스자키에 대해서는 “생활 방법이 다르며 인종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지역이며 따라서 온갖 노력 끝에 분촌에 성공했다는 것이다.³¹⁾

1889년 시제정촌제 시행을 위한 ‘메이지의 대합병’에서는 행정촌의 규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호 이상을 요구했다. 합병 당시 시라하마의 호수는 297호로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1878년의 호수 제한에서 겨우 1호가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라하마에서는 분촌을 하기 위해 호수 제한을 완화하여 300호로 호수를 증가시켜 합병청원을 해서 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당시도 현재도 국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합병한 자치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국가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사회로서는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라하마가 하마자키무라에서 독립하고자 한 것은 자원의 공유나 행정상의 불편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메이지의 대합병’ 때 시라하마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뭇가사리 채취권은 관행대로 시라하마구에 속하게

31) 우뭇가사리 채취와 관련해서 시라하마와 이웃한 소토우라(外浦) 사이에는 ‘경계지역 잠수(境潛り)’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우뭇가사리 채취가 시작되기 직전에 두 지역의 경계 부근에서 서로 상대방 지역의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의례적 행위이다. 소토우라의 주민은 주로 카키사키와 스자키 지역 출신이며 이 양 지역과 시라하마 사이에는 경쟁의식이 있었다. 우뭇가사리라는 천혜의 자원을 채취하는 경쟁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를 미리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방지하는 것이다.

되었고 또 시라하마구에서 촌장을 배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분촌에 따른 불리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정부가 시제 정촌제를 시행하면서 합병을 강제한 것은 합병을 통해 자치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시라하마는 우뭇가사리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는 아직 하청을 주는 시기이며 우뭇가사리가 촌의 재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바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분촌은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촌독립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라하마무라 연혁지』에서는 분촌독립이 커다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8월 20일의 ‘분촌기념일’ 행사가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다. 시라하마 주민 중에서 분촌기념일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배우는 모임’은 이 분촌기념일을 상기시켜 ‘무라의 행사’로 정하고 8월 20일에 시라하마 신사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행사가 지속적인 행사로 정착할지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잊혀져가던 역사를 표면으로 끌어내고 주민에게 그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배우는 모임’이 지향하는 바인 것이다.

한편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배우는 모임’에서는 향토사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 사실을 자원화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배우는 모임’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까지 시라하마와는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아보이던 역사적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가 ‘발굴’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다.

3) 자원으로서의 역사: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고갯마루 찻집’

요시다 쇼인은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지도한 스승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페리가 시모다 항구에 입항했을 때 쇼인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막부에 체포되는 몸이 되었다. 이 때 쇼인은 밀항을 위해 시모다와 주변 지역 곳곳에서 약 반 달 정도를 머물렀다.

시모다시는 개국과 관련된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고 있으며 요시다 쇼인은 개국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와 관련된 몇 군데의 사적이 있다. 이 사적들은 시모다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배우는 모임’에서는 사적과 기념물들을 시라하마 지구에서 발견해 내고 그것을 지역사회의 내외에 소개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쇼인과 관련된 사적을 “시라하마의 땅”에서 “발견”해 내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단 이 경우 불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일정한 수순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쇼인과 관련된 ‘고갯마루 찻집’이 있었던 장소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2000년 2월 13일 <이즈신문(伊豆新聞)>에 역사학자이면서 ‘배우는 모임’의 회원인 사사키씨의 칼럼이 게재되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한다.

1854년 3월 해외 밀항을 기도한 요시다 쇼인은 페리 함대를 쫓아 이즈반도 동해안을 거쳐 시모다에 왔다. 결행 전야 묵었던 곳이 오는 도중에 들렀던 사카노단(坂の段)에 있는 찻집이었다고 되어 있었다. 노야마의 옥에 갇혀 있던 쇼인이 1년 후에 쓴 회고록에 그 내용이 실려 있고 찻집을 경영하고 있던 사카(坂, 야고)에 숙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항에 실패해서 자수한 쇼인을 취조한 관리의 기록에는 시라하마무라의 사카노우에(坂の上)에 숙박했다고 되어 있다. 시라하마 쪽에서 사카노단의 길을 넘을 때 심한 비탈을 올라 한숨 돌리고 싶어지는 장소에 찻집(하라다 아사히야의 선조가 경영)이 있어서 시치혜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쇼인이 숙박한 곳이 여기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확실시되어 오던 사실도 확인해 보면 달라지기도 한다.(하선은 필자)

쇼인이 소토우라 해변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쇼인은 시모다에서 자신을 도와 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회고록에 애매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 그가 넘었다고 하는 고개가 시라하마에 있는 고개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시라하마 고개의 찻집은 노인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에 없어진 곳은 아니다. 쇼인이 묵었다는 찻집과 그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칼럼에서는 시라하마의 하라다 사람인 “아사히야의 선조가 경영”했다고 함으로써 그것이 시라하마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칼럼이 게재될 후 뭔가 반응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아무 반응도 없었다. ‘배우는 모임’에서는 시라하마 고개에 ‘찻집터’(茶屋跡地)라고 쓴 나무로 팻말을 만들어 세워서 장소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팻말이 서 있는 곳은 우에노야마(上山)와 시라하마의 경계에서 약간 시라하마 쪽으로 치우쳐 있다. 팻말에는 단지 ‘찻집터’라고만 하고 쇼인과의 관계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권위 있는 역사가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게 되면 관계가 명확해질 것이다.

“이건 금방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찻집이 시라하마 땅에 속해 있다고 정하면 된다.” ‘배우는 모임’을 주도하는 테라카와씨의 이야기다. 이것은 “역사 자료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온 시대의 이야기도 기록하면 장래 역사 자료가 된다”는 향토사가의 견해와 통하는 인식이다.

시모다시는 ‘개국의 땅’이라는 기치를 들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쇼인과 관련된 사적의 비중은 크다. 세월이 흘러 쇼인이 하룻밤을 묵었다는 ‘고개의 찻집’을 관광자원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향토사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로 들게 될 것이다.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시라하마의 지역사회사를 재구성하고 생활공동체의 역사를 자원으로 이용하는 향토사운동에 관해 논의해 왔다. 시라하마의 사회사에서 보아 온 것처럼 시라하마는 극히 높은 정도의 공동체성을 유지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내적인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세의 시라하마는 엄혹한 영주 치하에서 곤궁한 중에도 주민들 사이에는 계급적인 차별이 있었다. 이 계급차는 근대까지 이어졌다가 철폐되었으나 구성원의 평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분가나 전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내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에 내재하는 불평등과 갈등은 하라 타케조의 예에서 보듯이 때로 표면화되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공산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다. 시라하마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규모가 큰 지역이 자연촌을 이루고 있었고 또 그것이 행정촌의 영역과 겹쳐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큰 단위의 지역사회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공동체성의 물적 기반이 되는 우뭇가사리의 존재는 시라하마의 공동체성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금 우뭇가사리는 지역사회의 실제성을 부활시키려는 향토사운동의 좋은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공동체 또는 생활공동체는 경제적인 요소를 매개로 한 사회단위이지만 재생시키려는 공동체성은 물질을 넘은 문화적 측면의 부활이다.

공통의 공간과 역사는 실제 그것이 모든 주민을 끌어들이는 유대의 원천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주민에 의해 지역의 중심축을 유지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축이 유지되는 한 역사는 기억되고 되살아나며 유지되는 것이다. 시라하마의 주민들은 “우뭇가사리 문화”라고 할 만한 역사적 배경을 향토의 유대를 유지하는 향토사의 재료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그것은 “좋았던 옛날”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환상 만들기이며 ‘옛날의 시라하마로부터 배우는 모임’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도 미래에는 옛날이 된다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지속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동체적 요소를 되살리고자 하는 향토사운동은 “좋았던 옛날”에 공동체적 요소가, 그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평등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공동체의 정신적인 측면을 통해 시라하마라는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역사 속의 갈등은 의도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도 한다.

향토사운동은 의례행위나 사적(史蹟) 만들기처럼 인식 가능하고 때로 가시적인 활동에 의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지속되는 것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벤트나 경우에 따라서 지역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문화 권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関口博巨

1992 “近世関東の『村』と百姓土地所持 - 武州志多見村を中心に -” 『歴史学研究』 No.628 : 18-33.

金原左門

1993 “日本の『自治体』史編纂と歴史家の役割” 『歴史学研究』 No.642 青木書店 : 1-7.

鈴木栄太郎

1940 『日本農村社会学原理』 未来社

武田哲夫

1976 『回想の伊豆』 伊豆シリーズ』 3、伊豆を愛する会

白浜村

1954 『天草の沿革』 白浜村

白浜村

1954 『村勢要覧』 白浜村

阿部善雄・小沼勇

1951 “漁村の構造 - 伊豆白浜の場合 -” 『社会学評論』 4 : 44-58.

原 昇

1996 “終戦前の学校教育” 終戦五十周年記念誌編集委員会編 『海鳴り一昭和の戦争と下田 -』 静岡県下田市 : 167-169.

伊豆の天草漁業編纂会編

1998 『伊豆の天草漁業』 成山堂書店

伊藤亜人

1977 “漁民集団” 『日本人の社会』 講座 比較文化 第6巻 研究社 : 67-84.

静岡県漁業組合

1994 『静岡県水産誌』 卷三 静岡県漁業組合

斎藤 博

1986 『地域社会史の誕生』 新評論

鳥越皓之

1985 『家と村の社会学』 世界思想社

中川剛

1990 『地方自治制度史』 学陽書房

Felstiner, W.

1974 “Influences of Social Organization on Dispute Processing,” *Law & Society Review*, Vol.9. Fall, pp.63-94.

〈자료〉

『白浜村沿革誌』 手記

雑誌『黒船』 第8卷第11号(1931)

『白濱』 昔の白浜に学ぶ会 会報 各号

<Key Concepts>: local history, local history movement, community, local culture, local society, shizenson, Izu Shirahama, agar culture

**Social History and Local History Movement
in a Japanese Village :
A Case Study of Izu-Shirahama**

Park, Dongseong*

This paper conducts a case study of Shirahama to discuss the local history movement. It uses local historic events and culture as a push factor to revive the community and its values.

Shirahama, despite being a strongly-tied community, always contains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ternally. Though Shirahama suffered under severe feudal lords in the Tradition Period, class distinction emerged among the inhabitants. Discrimination by class continued after the modern age when the class distinction was abolished and resulted in the transfer of the socially-weak to other villages.

Agar, because of its economic value, was an important community resource in Shirahama, making it a good material for a case study to understand the local history movement that schemes for the revival of the community nowadays. Community, often intermediated by an economic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element, is a social unit including cultural traits. Because agar was the material base that held a community together, some inhabitants attempt to use it as a historical item to revive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the past. Common space and the history, although not shared altogether, play a sufficient role in maintaining the central axis of the community. Therefore, once the central axis is maintained, then the history revives and is maintained. Some inhabitants of Shirahama try to use “agar culture”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a material item of the local history to be maintained. The local history movement is a continuation from the past and an extension of the present and to the future.